

## 조선업 '침몰'... 지역경제 '휘청'

대불산단 현장 긴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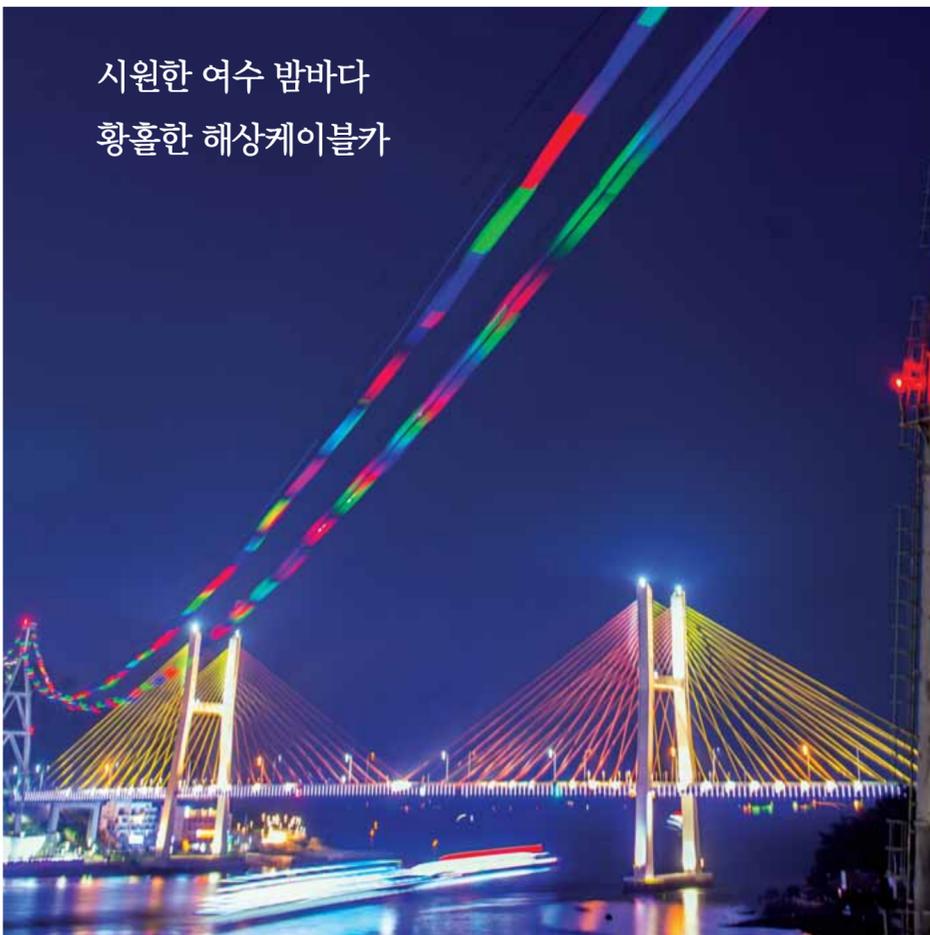
고용 2년 새 5000여명 감소  
"차라리 폐업" 지원금 신청 안해  
음식점·숙박업소 줄줄이 폐업  
영암군 세금징수액 50억 줄어

전남 조선업의 메카인 영암군에 지역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조선업 특별고용대책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손길이 닿기 전에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영암 대불산단단지 조선 관련 기업 고용인원은 2만1681명으로, 2014년(2만6852명)에 비해 5171명(19.5%)이 감소했다. 지난 달 말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자가 16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내협력사 고용인원이 1만1125명에서 9057명으로, 대불산단 내 다른 업종 기업의 고용인원 역시 1만1346명에서 8419명으로 각각 급감했다. 현대중공업, 대한조선 등 지역 내 대형 조선업체 수주 잔량이 약 1.5년 작업물량에 그쳐 운영여지가 가중돼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기준 수주잔량은 현대중공업 80척(80억 달러), 대한조선이 23척(13억 달러)이었으며, 올해 수주한 물량은 현대중공업 2척(1억3000만 달러), 대한조선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6700억원 규모의 석유시추선 인도가 취소됐으며, 지난해 2760억원 적자 등 3년간 연속 영업적자 상태다. 이로 인해 대불산단단지 내 50여개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난 및 고용 위기감도 증대되고 있다. 낮은 하청단가에 업체들의 경영상태도 악화일로에 있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81곳에서 2년만에 6곳이 줄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주변 상권도 동반 침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대불산단 인근 음식점 364개소, 숙박업 16개소가 폐업을 신고했다. 할인마트 1일 평균 이용객은 하루 1500명에서 800명으로, 조선업계 근로자 주거지 인근 식당 매출액도 하루 평균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원물의 공실율도 급증하고 있다.



시원한 여수 밤바다  
황홀한 해상케이블카

오는 9월 중국의 크루즈 관광객 6400여 명이 여수항으로 입항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있다. 26일 오후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간 바다 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거북선대교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네번째이며 국내 최장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군 재정도 직격탄을 맞았다. 영암군이 징수한 조선 관련 업체 국세·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5월 97억4000만원(도세 13억5200만원, 군세 83억5200만원)에서 올해 5월 46억2500만원(도세 8억4300만원, 군세 37억82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절반이 넘는 50억7900만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지역 조선업 관련 업체들의 호응도 낮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전남도내 268개 업체를 포함해 7800여 개 업체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

뵈지만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지역 업체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근로자 휴업수당 중 일부도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체들의 문의는 있지만 신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 상황에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1일부터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목포시, 영암군과 함께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홍하 때문에-서진여고 폐교위기 ▶ 6면  
이제는 문화시민-⑦ 국립극장 ▶ 18면  
승부조작-프로야구 불신시대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넘버 3' 전략한 광양항 물동량 똑똑 떨어진다

정부·전남도 대책 마련 시급

광양항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부진 속에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처리량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베트남 등의 물량을 가져간 인천에 꾸준히 밀리면서 '두 포트'의 위상도 사라졌다. 전남도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26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에 따르면 광양항의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철강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의 수입 감소와 철강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광석과 유연탄 수입량은 각각 1645만3000t, 1101만8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1950만7000t, 1295만5000t)에서 15.7%, 15.0% 줄었다. 철재 수출 역시 634만2000t에서 405만5000t으로 36.1%나 급감했다.

컨테이너 처리량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한 116만3000TEU를 보였다. 수출입은 1.5% 감소한 88만4000TEU, 환적 물량은 5.3% 감소한 27만9000TEU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광양항의 부진 속에 인천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증가한 123만TEU를 기록했다.

광양항과 함께 자동차 수출항인 목포항도 비컨테이너 수출입 규모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수출이 216만7000t에서 193만5000t으로, 자동차 연안수송이 275만8000t에서 184만2000t으로 각각 10.7%, 33.2%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 12.8%만큼의 물량이 사라졌다.

한편 2016년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수출입화물 6억896만t, 연안화물 1억3081만t 등 모두 7억3977만t으로 전년 동기(7억2568만t) 대비 1.9%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내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예산확보·국내외 홍보에 '청신호'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내년에 열리는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됐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이들 행사의 예산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정부가 행사 브랜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통과해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비엔날레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45억원 규모, 행사 기간은 지난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 참여, 외국인 참여 비율 5%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억원 이상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35개 항목을 심의해 필요성 등을 충족했을 때에만 승인하고 함께 정부 지원이 가

능하다. 시는 9월까지 전시감독을 선임하고 행사주체 확정, 마스터 플랜 수립, 전시 공간과 콘텐트 확정 등 준비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도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았다. 정부 승인으로 국비 30억원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기재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고자 국제행사 주관 기관 축소, 국제행사 졸업제도 도입, 외국인 유치비용 설정, 유치 승인 후 재정관리 강화 등 국제행사 승인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며 "이번 국제행사 승인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위상과 권위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미래해조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해조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취지로 2017년 4월14일부터 5월7일까지 24일간 완도항 일원에서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완도=정은주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